

‘꿈의 예술단’ 아동·청소년 단원, ‘꿈의 페스티벌로’ 하나 된다

- 8. 5.~7. 평창에서 오케스트라·무용 캠프, 8. 12.~14. 밀양에서 극단 캠프 개최
- 8. 6. 최휘영 장관, 평창 캠프 현장 찾아 ‘꿈의 예술단’ 단원 격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임진택, 이하 진흥원)과 함께 올해 3회째를 맞이한 ‘꿈의 페스티벌’을 장르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 캠프로 개편, 평창에서 오케스트라·무용(8. 5.~7.) 캠프를, 밀양에서 극단 캠프(8. 12.~14.)를 운영한다. 최휘영 장관은 8월 6일(목), 평창 캠프 현장을 찾아 전국 각지에서 모인 오케스트라, 무용단 단원들을 격려한다.

* 꿈의 예술단: 베네수엘라의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무상 음악교육 프로그램인 ‘엘 시스템아’를 한국형 문화예술교육 모델로 발전시킨 사업

오케스트라, 무용, 극단 등 ‘꿈의 페스티벌’ 장르별 특화 운영으로 예술 교육의 전문성 강화

알펜시아 뮤직 텐트 일원에서 열리는 평창 캠프(8. 5.~7.)에서는 ‘꿈의 오케스트라’ 5개소와 ‘꿈의 무용단’ 13개소 등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온 단원 약 8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리와 몸으로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어 가는 여정을 떠난다. 문화기획자 이선철(감자꽃스튜디오 대표)이 단장을, 공연기획자 정민경(클래식스 대표)이 연출 감독을 맡아 캠프 전반을 이끈다.

캠프 첫날인 8월 5일 저녁에는 무용팀 저스트절크(Just Jerk)의 댄스 연수회를 통해 단원들이 색다른 몸짓 표현을 경험하며 서로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낸다. 8월 6일 저녁에는 각 지역과 장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가득한 합동공연을 선보인다. 발레 공연 <꿈의 랜드>를 시작으로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넘나드는 연주가 이어지고, 특히 전체 단원이 함께하는 주제가

‘나의 내일을’ 무대에서는 오케스트라의 선율과 무용의 아름다운 몸짓, 풍성한 합창이 어우러져 깊은 울림을 선사할 예정이다.

밀양 캠프(8. 12.~14.)에서는 배우 오만석(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이 총감독을 맡아 ‘꿈의 극단’ 3개소의 아동·청소년 단원 약 150명과 함께 하나의 무대를 만든다. 합동공연에서는 밀양의 설화를 바탕으로 한 <태극 나비가 된 전설의 아이들>을 선보인다.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아동·청소년기의 예술 활동은 자신감과 자존감을 키우고 협력과 배려의 의미를 깨닫는 소중한 기회”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더욱 많은 아이들이 ‘꿈의 예술단’을 누릴 수 있는 거점을 꾸준히 늘려가고, 지역에서 예술단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1. ‘꿈의 페스티벌’ 포스터
2. ‘꿈의 페스티벌’ 행사 개요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예술교육과	책임자	과장	박상현 (044-203-2761)
		담당자	사무관	이정은 (044-203-2766)





붙임 2 꿈의 예술단 합동캠프 <꿈의 페스티벌> 행사 개요

□ 꿈의 페스티벌-평창 “아름다운 하모니”

- 행 사 명: 2026 꿈의 예술단 합동캠프 <꿈의 페스티벌 - 평창>
- 일시장소: '26. 8. 5.(수)~7.(금), 강원 평창 알펜시아, 뮤직텐트 외
- 참여인원: 전국 꿈의 예술단 단원 및 관계자, 관객 약 800명
 - 캠프 참여: 꿈의 오케스트라(5개소) 및 꿈의 무용단(13개소)
 - 초청: 꿈의 오케스트라 구로, 꿈의 예술단 단원 보호자 등
- 주요 프로그램 : 꿈의 예술단 교류 및 전문가 워크숍, 합동캠프 및 공연



전문가 워크숍



교류 및 체험 프로그램



합동공연

□ 꿈의 페스티벌-밀양 “PLAY로 놀자”

- 행 사 명: 2026 꿈의 예술단 합동캠프 <꿈의 페스티벌 - 밀양>
- 일시장소: '26. 8. 12.(수)~14.(금) 경남 밀양 아리랑아트센터 외
- 참여인원: 전국 꿈의 극단(3개소) 단원 및 관계자, 관객 약 150명
- 주요 프로그램 : 교류·창작 워크숍, 공연관람, 합동공연



전문가 워크숍



교류 및 체험 프로그램



합동공연